



2003. 9

김은지
eunji@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377.835 km²
- 인 구: 12,735만명(2003년 1월 현재)
- 기 후: 계절풍 온대성 기후
- 시 간 대: 한국과 동일

□ 행 정

- 공식국명: 일본(Japan)
- 수 도: 동경(인구: 1,289만명, 2003년 1월 현재)
- 행정조직: 1都(東京都), 1道(北海道), 2府(大阪府, 京都府), 43縣

□ 정 치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 국가원수: 아키히토(明仁) 천황: 年號는 平成
- 의회형태: 양원제(중의원: 500명, 임기 4년, 참의원: 252명, 임기 6년)
- 총 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2001년 4월 26일 출범)
- 주요정당: 자민당(집권당)과 공명당, 보수당의 自公保 3당 연립정권 체제, 민주당(제 1야당), 사민당, 자유당 등

□ 사회·문화

- 민 족: 일본족(몽고족과 극소수의 아이누족, 코로포크족 등)
- 언 어: 일본어(표준어: 동경어)
- 종 교: 神道(9,200만명), 불교(8,400만명), 기독교(84만명) 등
- 재일한국인: 약 64만명(2002년 말 현재)
- 공 휴 일: 元日(설날), 성인의 날, 건국기념일 등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5년 12월 8일(한일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발효)
- 협정체결: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한일 어업협정,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 한일 통화스왑 협정, 한일 투자협정 등
- 주요교류: 정기 각료회담, 고위급 외교정책협의회, 한일의원연맹 등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2000	2001	2002	2002				2003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실질)	조엔	539.2	532.6	541.2	530.4	536.7	540.5	543.0	544.8	547.9
실질GDP성장률	%	3.2	-1.2	1.6	0.1	1.3	0.7	0.5	0.3	1.0
광공업생산지수	%	4.0	-10.2	2.6	0.7	2.8	2.0	0.4	0.3	-0.6
소비자물가지수	%	-0.6	-1.0	-0.8	-0.7	0.2	-0.2	-0.1	-0.6	0.5
실업률	%	4.7	5.2	5.4	5.3	5.3	5.4	5.4	5.4	5.4
수출	십억불	480.7	405.2	415.9	93.5	101.1	108.4	112.8	109.1	112.7
수입	"	381.1	351.0	336.8	76.6	80.2	87.9	91.9	92.2	92.4
환율(평균)	엔	110.4	124.9	121.9	132.4	127.1	119.2	122.5	118.8	118.4
외환보유고	십억불	361.5	401.5	496.1	401.5	446.2	460.7	469.7	496.2	545.6

주 : 前年(前分期) 대비 기준임. 회계연도(당해년 4월~익년 3월)기준.

단, 수출·수입·경상수지는 曆年(1~12월)기준.

자료 : 日本銀行. 『금융경제통계월보』 각월호.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四半期經濟豫測』. 2003. 8.

日本 貿易振興會(JETRO). 「日本の貿易統計・國際收支統計」

2. 향후 경제전망

항 목	2003	2003	2004	2004
	3/4	4/4	1/4	2/4
GDP 성장률(%)	0.4	0.4	0.4	0.3
소비자물가지수(%)	-0.4	-0.4	-0.4	-0.5
실업률(%)	5.3	5.4	5.4	5.4
광공업생산지수(%)	1.1	0.9	0.5	0.0

주: GDP 성장률과 광공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이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四半期經濟豫測』, 2003. 5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 십억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1-7	
					금액	비중
〈10대수출상품〉						
자동차	62.2	64.5	59.6	70.0	43.0	16.5
화학제품	30.8	35.4	30.9	33.3	21.9	8.4
반도체등전자부품	32.8	42.6	30.2	30.9	18.7	7.2
철강·금속	23.8	26.5	23.8	25.8	16.4	6.3
사무용기기	26.8	28.8	23.3	24.0	12.7	4.9
자동차부품	14.4	17.3	15.5	16.9	11.1	4.3
정밀기기류	21.1	25.8	21.7	16.1	9.8	3.8
원동기	13.3	15.2	14.2	13.9	8.4	3.2
영상기기	10.6	13.0	11.2	12.9	8.1	3.1
선박	9.3	9.8	8.3	8.9	5.8	2.2
〈10대수입상품〉						
원유·정유	26.9	44.8	39.0	36.5	27.3	12.6
화학제품	23.1	26.6	25.6	25.8	17.0	7.8
섬유제품	20.8	24.6	23.9	22.0	12.7	5.9
사무용기기	19.8	27.0	22.9	21.4	13.2	6.1
반도체등전자부품	13.5	19.9	15.8	15.2	9.4	4.3
금속·금속제품	14.2	18.2	15.1	13.6	9.3	4.3
어패류	14.5	15.4	13.4	13.2	7.1	3.3
육류	7.8	8.6	8.4	7.7	5.0	2.3
자동차	6.3	7.2	6.4	6.4	3.7	1.7
목재	5.7	6.1	4.8	4.8	2.8	1.3

자료: 日本 JETRO. <http://www.jetro.go.jp>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십억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1-7	
					금액	비중
〈주요수출국〉						
미국	128.1	150.4	121.7	118.5	66.1	25.3
중국	23.3	30.4	31.0	39.9	30.7	11.8
한국	23.0	30.8	25.4	28.6	18.9	9.3
대만	28.8	36.1	24.3	26.2	16.4	6.3
홍콩	22.0	27.3	23.3	25.4	16.2	6.2
독일	18.6	20.1	15.7	14.1	9.2	3.5
태국	11.3	13.7	11.9	13.2	8.7	3.3
싱가포르	16.3	20.9	14.7	14.2	8.2	3.2
영국	14.2	14.9	12.2	11.9	7.6	2.9
말레이시아	11.1	13.9	11.1	11.0	6.2	2.4
〈주요수입국〉						
중국	42.9	55.3	58.1	61.7	41.0	18.9
미국	66.9	72.4	63.5	57.6	34.3	15.8
한국	16.1	20.5	17.3	15.5	10.0	4.6
호주	12.8	14.9	14.5	14.0	8.6	4.0
인도네시아	12.6	16.4	14.9	14.2	8.0	3.7
대만	12.8	18.0	14.2	13.5	8.0	3.7
독일	11.5	12.8	12.4	12.4	7.8	3.6
말레이시아	10.9	14.5	12.9	11.2	7.1	3.3
태국	8.8	10.6	10.4	10.5	6.6	3.1
영국	5.9	6.6	6.0	5.4	3.2	1.5

자료: 日本 JETRO. <http://www.jetro.go.jp>

다.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1999	2000	2001	2002년 상반기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해외직접투자〉					
연간총액	66,694	48,580	31,606	16,901	23.4
미국	22,296	12,136	6,370	3,090	-1.6
영국	11,718	19,142	3,960	1,519	80.7
네덜란드	10,361	2,757	4,506	1,540	-56.4
중국	751	995	1,440	919	22.3
한국	980	813	543	318	-10.4
홍콩	971	936	296	123	33.5
인도네시아	918	414	461	130	-32.1
.....					
금융·보험	9,885	8,405	10,752	5,845	118.4
부동산	2,114	364	525	1,252	460.3
무역업	3,876	3,344	2,577	1,020	-15.7
전기전자	16,350	3,074	3,660	910	-47.5
서비스업	4,314	1,760	1,550	652	-1.5
화학	1,694	1,916	1,492	679	4.0
.....					
〈외국인직접투자〉					
연간총액	21,510	28,276	17,405	5,151	-59.0
미국	2,230	9,141	5,139	1,824	-49.5
싱가포르	660	88	247	152	181.2
네덜란드	4,225	468	6,575	143	-97.5
독일	418	2,530	98	78	30.6
영국	806	506	1,164	40	-96.6
한국	95	48	24	6	-46.6
.....					
금융·보험	4,586	9,313	5,281	1,766	-52.6
기계	7,757	3,184	1,107	842	38.0
화학	540	1,618	924	533	52.5
서비스업	1,845	2,140	1,330	532	-12.6
무역업	3,124	2,498	871	409	33.8
부동산	151	313	588	163	-51.2

자료: 日本 JETRO, 『ジェトロ投資白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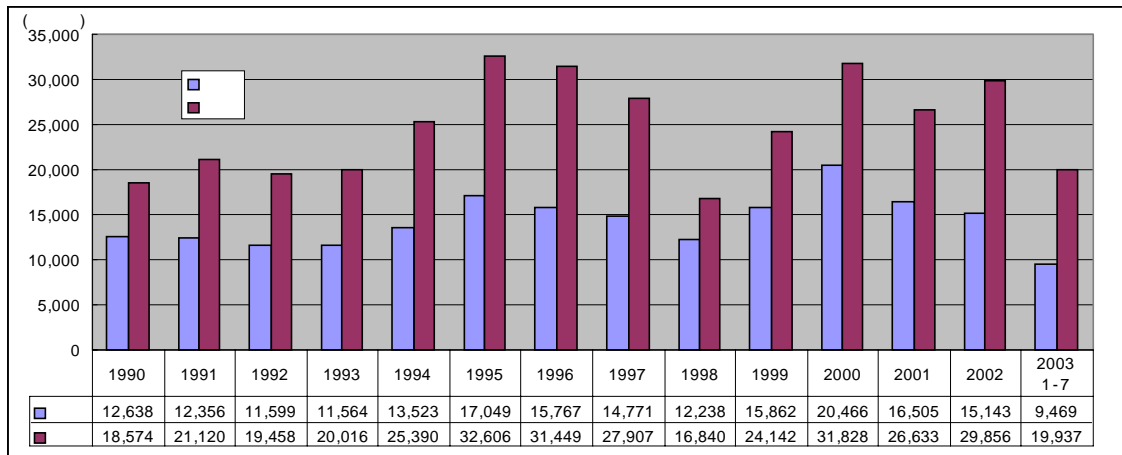
4. 한·일본 경제관계

가. 교역

□ 교역비중

- 일본은 한국의 3대 수출국, 1대 수입국(2003년 7월 현재)
- 한국은 일본의 3대 수출국, 3대 수입국(2003년 7월 현재)

□ 연도별 수출입 추이



□ 한국의 對日 업종별 수출입 내역

(단위 : 백만불)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7
〈주요 수출상품〉						
전자부품	1,998	2,690	3,545	2,302	2,924	1,868
유류제품	1,182	2,066	3,668	3,127	2,404	1,684
산업용전자	299	1,502	2,601	2,009	1,467	825
철강제품	1,286	1,318	1,519	1,189	1,026	711
섬유제품	1,072	1,250	1,216	925	706	324
〈주요 수입상품〉						
전자부품	4,044	5,919	7,008	5,381	6,061	3,864
철강제품	1,632	2,344	2,984	2,722	3,533	2,521
산업용전자	1,159	1,996	2,959	2,543	2,823	1,788
석유화학	1,267	1,547	1,841	1,734	1,701	1,150
정밀기계	513	850	1,678	1,019	1,927	754

주 : MTI 2단위 기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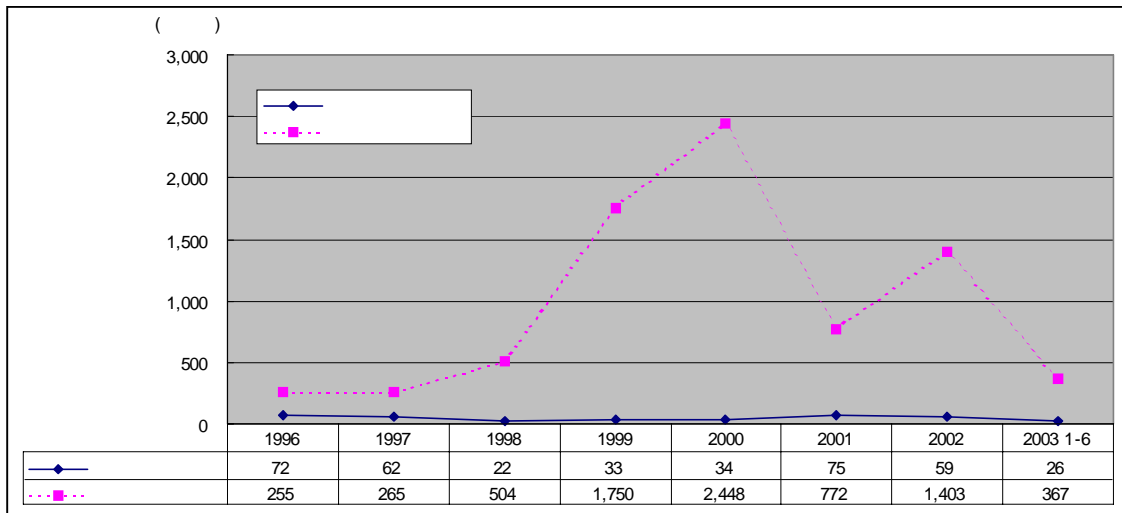
자료 : KOTS.

나. 투자

□ 투자비중

- 일본은 한국의 10대 해외직접투자국 (2002)
3대 외국인투자국 (2003 1~6)
- 한국은 일본의 11대 해외직접투자국, 20대 외국인투자국(2003년 1~6)

□ 양국의 연도별 對일본 투자/對韓 투자 추이



주 : 1) 한국의 對日投資는 순투자기준으로 작성함.

2) 일본의 對韓投資는 신고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동향』,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 한국의 對日투자 내역(2003년 6월 현재, 누계기준)

(단위: 건, 천 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숙박 음식업	부동산 서비스업	계
(순신고)									
건수	153	3	202	28	15	0	13	204	622
금액	174831	656	382,444	-7,980	83,928	0	1,636	213,150	850,258
(순투자)									
건수	140	2	189	28	14	0	12	192	581
금액	147,660	509	240,764	-9,185	65,770	0	1,336	173,717	622,14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지역별 해외투자현황」.

□ 한국의 對日 기술도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19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1~2	총누계
일본	399.2	694.8	723.9	505.2	509.4	515.6	527.4	464.7	63.8	6,934.2
총액	1,276.6	1,947.0	2,297.2	2,414.6	2,386.5	2,685.8	3,062.8	3,112.2	525.1	27,614.1
비중	31.3	35.7	31.5	20.9	21.3	19.2	15.9	14.9	12.2	25.1

자료 : 산업자원부(2003). 『외국인투자동향』

Ⅲ. 경제 현안

1. 일본의 경제현안

가. 주요 경제현안

□ 일본 내각부가 9월 10일 발표한 2차 속보에 의하면, 2003년 2/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으로 0.6%(年率 2.3%)에서 1.0%(年率 3.9%)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본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2/4분기 플러스 성장은 개인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수출부문의 호조와 큰 폭의 설비투자 상승세에 기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SARS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명목 GDP성장률도 3분기만에 플러스(0.3%)로 전환하였고, 1/4분기 실질 GDP성장률도 0.1%에서 0.3%로 상향 수정되었음.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1년도	2002년도	2002년				2003년	
	실질	실질	1/4	2/4	3/4	4/4	1/4	2/4
GDP성장률	-1.2	1.6	0.1	1.3	0.7	0.5	0.3	1.0
개인소비	1.5	1.4	0.5	0.3	0.7	0.0	0.3	0.4
설비투자	-3.6	-0.2	-1.8	1.5	1.5	2.8	1.2	4.7
주택건설투자	-8.0	-2.9	-2.4	-0.4	-0.1	-0.8	-1.0	-0.3
공공투자사업	-4.9	-6.3	2.2	-3.1	-2.7	-2.3	-2.9	-1.9
수출	-7.2	12.2	5.4	6.9	0.1	4.3	0.6	0.8
수입	-3.2	5.6	1.0	3.4	2.6	1.5	0.7	-1.6

주: 회계연도는 당해연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기간임.

자료: 일본 내각부(2003. 9. 10), 「平成 15년 4~6月期 四半期別 GDP 2次速報」

□ 기업의 설비투자 및 수출입 부문의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각각 0.8%, 0.2% 포인트를 기록,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회복의 가시화가 입증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수출 증가가 생산회복 → 설비투자 의욕 증대 → 경기회복이라는 선순환 경기로의 전환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시현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회복과 재고조정 등의 진전 등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 기반을 구축하는데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국경제의 불투명성을 포함한 해외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증가한 점과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와 기업의 연간 설비투자계획을 감안한다면, 향후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우선,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상황은 3/4분기에도 2.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2003년도 일본기업의 연간 설비투자계획은 일본은행의 단기경기관측조사(단칸조사)에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음.

□ 지난해 경기회복의 전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던 수출은 1/4분기에 이라크 전쟁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4분기 들어 대아시아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함.

- 2003년도 상반기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이 각각 26조 3,192억 엔(전년동기대비 3.9% 증가), 21조 9,383억 엔(동 7.2% 증가)을 기록한 결과, 무역수지 흑자폭은 4조 3,800억 엔(동 10.1% 감소)으로 축소됨.

- 지역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부진한 대미 수출을 대신하여 대아시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특히, 2000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23.5%의 증가율을 나타낸 대중수출은 2003년 상반기에만 무려 36.5%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음.

○일본의 대중수출이 급증한 배경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일본기업의 대중투자 확대와 중국의 관세인하 효과를 계기로, 사무용 기기를 비롯한 설비 등의 자본재 수출과 자동차 관련 부품 등의 수출이 확대된데 기인함.

- 최근 수출입 실적은 대아시아 수출증가에 힘입어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회복되고 설비투자 의욕이 증대될 것이라는 경기회복에 대한 일본정부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

□ 일본경제신문(日經)이 9월 6일 발표한 상장기업 실적 전망치에서는, 일본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의 수익 체질 개선을 통하여 증가된 수익으로 잇따라 설비투자를 확대시킨 결과, 최근의 경기회복이 시현되고 있음이 증명됨.

- 금번 조사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상장기업 1,628社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사상 최고 규모의 18조 6,453억(전년대비 16.7% 증가)엔의 기업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됨.

- 특히, 디지털 가전제품 관련 부품·제품 기업의 판매 호조,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용 감축 효과, 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기기계, 자동차, 철강 업종관련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관련 상품의 판매 호조로 마쓰시타 전기와 샤프 등 전기기계 업종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온 후지쓰는 인원삭감 등을 통해 고정비용을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기업의 경우, 도요타, 닛산, 혼다 3社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증가에 힘입어 경상이익 규모가 3천억 엔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자동차 관련 기업은 엔고로 인하여 수출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익이 감소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또한 SARS의 조기 종결과 중국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철강재 등의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증가됨에 따라, 수익의 증가가 예상됨.

<표 2> 주요 상장기업의 업종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엔, %)

업종	매출액	경상이익	최종손익
제조업 (970 社)			
2002/3	2,186,910(-1.9)	46,872(-58.4)	670(-98.4)
2003/3	2,246,727(2.7)	95,868(104.5)	35,552(5201.3)
2004/4*	2,290,333(1.9)	115,291(20.3)	60,832(71.1)
비제조업 (658 社)			
2002/3	1,914,199(-2.1)	46,267(-25.7)	-2,295(-)
2003/3	1,900,045(-0.7)	63,892(38.1)	14,891(-)
2004/3*	1,894,193(-0.3)	71,161(11.4)	36,104(142.5)
全산업 (1,628 社)			
2002/3	4,101,109(-2.0)	93,140(-46.8)	-1,625(-)
2003/3	4,146,772(1.1)	159,761(71.5)	50,444(-)
2004/3*	4,184,527(0.9)	186,453(16.7)	96,937(92.2)

주: *는 전망치임

자료: 일본경제신문(2003. 9. 7) “上場企業, 經常益 16% 増”

□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도 디플레이션의 핵심요인인 침체된 소비심리의 회복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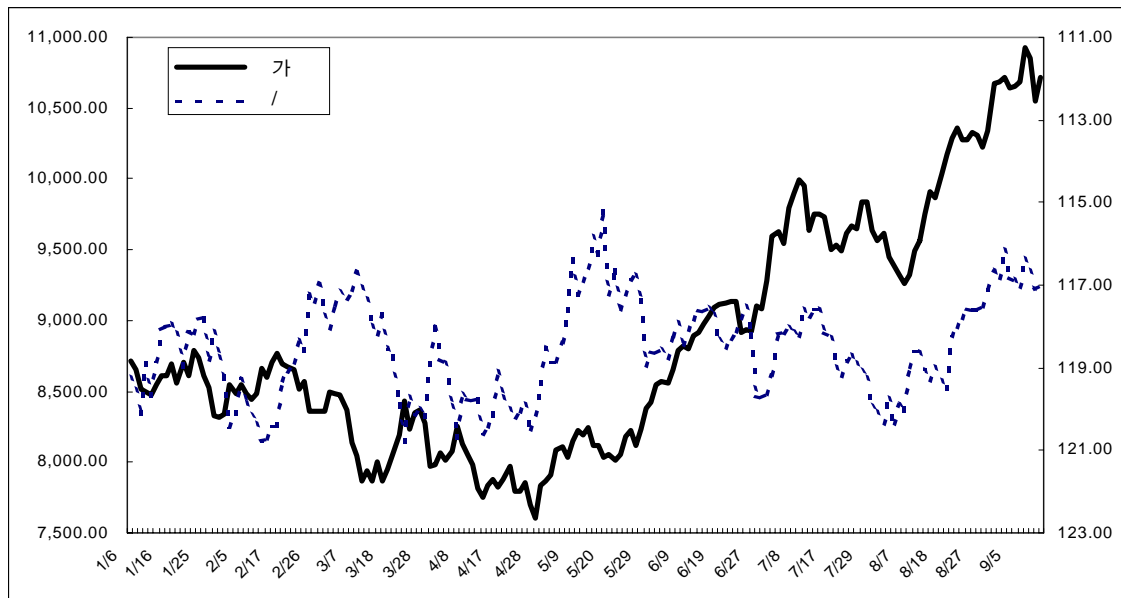
- 지난 5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로 전환한 닛케이 평균주가는 8월 18일 終價기준으로 1년 만에 10,000 포인트대로 회복한 이래, 상승세를 견지하여 9월 9일에 10,992.04 포인트까지 상승하였음.

- 최근 닛케이 평균주가의 상승 요인은 △부실채권처리 가속으로 금융시장 안정 △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의 고조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경기 동향에 민감한 주식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매입 증가 △하이테크 업계의 수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닛케이 평균주가는 고이즈미 내각이 발족(2001년 4월)될 당시 14,000 포인트 이상까지 상승하였으나, 2003년 4월 28일에는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버블 붕괴 이후의 최저치 수준(7,607 포인트를 기록)을 경신한 바 있음.

<그림 1> 일본의 주가 및 환율의 추이



주: 2003년 1월 4일부터 2003년 9월 12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http://www.technobahn.com>

나. 전망 및 주요 과제

□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8월 월례경제 보고서를 통해 생산과 수출의 호전이 기업수익 및 설비투자의 개선으로 연계되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0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0.6%)의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아울러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일본 경제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율적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배경으로 2/4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 또한, 주요 13개 민간연구기관의 2003, 2004년도 실질 GDP성장률 전망치는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1.4%, 1.0%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기관의 일본 GDP성장률 예측

	해외기관			일본 민간연구기관		
	OECD	IMF	DRI·WEFA	NRI	JRI	JCER
2003년도	1.0	0.8	1.1	1.7	1.5	1.9
2004년도	1.1	1.0	1.5	1.1	1.0	1.3

주: OECD, IMF는 2003년 4월, DRI·WEFA는 2003년 5월 발표 자료임.

NRI(노무라총합연구소), JRI(일본총합연구소), JCER(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03년 8월 발표 자료임.

자료: 각 기관의 발표자료 참조

□ OECD는 일본경제가 기업을 중심으로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회복세를 시현, 디플레이션 해소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회복기조가 정착되기 이전까지 일본중앙은행(日銀)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OECD는 일본경제의 회복 여부는 강력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GDP성장률이 2003년도 1.0%, 2004년도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고용과 소득환경 개선 지연에 따른 개인소비의 정체와 수출·주가 상승 등에 따른 엔고와 장기금리 상승 등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경기회복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개인소비는 전분기보다 0.1% 상승한 0.4%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수익회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삭감 등의 효과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과 소득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 더구나, 대아시아 수출 제품의 최종 소비지로서 미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경기의 향방에 따라 대아시아 수출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대아시아 수출의 급증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 특히 수출관련 기업은 엔고로 인하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이러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수익 감소 → 설비투자 감소 → 고용·소득환경이 또다시 악화될 여지가 높음.

- 아울러, 10년만기 국채의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1.6%대로 상승하는 등 채권가격이 불안정한 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주식 보유보다 채권투자에 역점을 두어온 대형은행의 손실이 증대되어 금융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JCER은 만약 장기금리가 1% 상승한다면 주택투자와 설비투자가 억제되어 실질 GDP성장률을 0.13%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일본경제의 구조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부실채권과 디플레이션 해소를 동반하는 선순환 경기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본경제의 정상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은행들이 매년 수조엔 이상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기업의 수익악화 등에 따른 신규 부실채권의 추가 발생으로 부실채권 처리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음.
- 2003년 3월 기준으로 부실채권잔액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지만, 일본 은행들의 자본 기반과 경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주가 하락 등의 환경 변화가 발생한다면, 은행의 부실채권잔액의 감소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1990년대 들어 일본경제는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음. 장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으나, 도매물가의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다. 대외경제 현안

- 일본의 통상정책이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에서 WTO와 FTA를 모두 중시하는 복합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된 이래,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 탈출, 산업구조 개편 등의 이유로 FTA 체결을 최우선 통상과제로 설정하였음.
- WTO에 대한 뉴라운드 가동이 실패하고, 가맹국 증가에 의해 WTO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WTO보다 합의가 용이한 FTA에 환경이나 투자 등의 WTO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는 움직임이 가일층 가속화됨.
- 이에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이래로 멕시코와 정부간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칠레, 태국 등의 국가와 양국간 FTA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FTA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은 싱가포르와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JSEPA,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 아직 지역 협정이 전무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음.
- 일·싱가포르 EPA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 등 무역 자유화·원활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통적인 FTA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전자상거래 협력, 인정 이동의 자유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매우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임.
- 일·멕시코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교섭을 개시한 일본은 2003년 10월을 합의 목표기한으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3차례의 공식 협상을 추진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본정부가 전체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멕시코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일·멕시코 FTA 교섭이 고착 상태에 빠져 있어, 목표기한 내에 교섭타결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일·멕시코 양국간에 FT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FTA체결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본 경제계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일·멕시코 FTA를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서 일본정부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음.

2. 한·일 경제 현안

가. 교역 부문

□ 일본은 한국의 최대수입국으로 2003년 1~7월 기준으로 수출은 3위, 수입은 1위, 무역규모로는 2위를 차지하였음.

- 2003년 1~7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9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일수입은 同 대비 23.6% 증가한 199억 달러를 기록함.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04억 달러로 확대됨.

- 한국의 수출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일수입의존도의 하락폭이 적은 것이 특징임.

○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일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9.3%에서 2003년 1~7월 9.0%까지 하락한 한편, 한국의 총수입에서 대일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과 2003년 1~7월에 동일한 수준인 19.7%를 기록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석유제품을 제외할 경우 반도체가 최대수출품목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컴퓨터, 의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반면 수입에서는 반도체, 철강판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일본의 수입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000년 5.4%, 2001년 4.9%, 2002년 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 1-7월에 4.6%로 소폭 증가하였음.

- 이처럼 최근 대일수출 규모가 축소된 배경은 일본의 장기불황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한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상품의 구성이 경기에 민감하거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품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기업은 변화하는 일본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출전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 또한, 최근 중국제품의 일본시장 점유율 급상승은 일본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일본시장 공략을 위해 대일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나. 투자 부문

□ 한일 양국은 2003년 6월 7일 동경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와 의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 일층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양국간 핵심 경제현안인 FTA 체결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가능한 조기에 개시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 밖에 비자면제 및 투자확대, 일본 문화개방, 서울-동경간 Air Shuttle Service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실무자간의 논의 가속화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모색되었음.

-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FTA 체결은 양국간의 무역·투자 증진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세계경제의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는 인식을 같이함.

□ 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년 7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원칙적으로 2-3개월 마다 연구회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6차례 개최된 바 있음.

-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는 양국간 FTA 체결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검토, 해소방안 모색 등을 중점적

으로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산관학 연구회에서는 한일 FTA의 기본방향과 원칙, 시장의 자유화·원활화, 투자·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규범의 조화, 양자간 경제정책 협력 등이 논의됨. 공동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양국간의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한일 FTA가 역내 시장확대, 양국간 협력 심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양국은 상호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시장을 대폭 개방하며, 역내 기업은 물론 주요 경제통합체 기업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일치함.

○둘째, 한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에서는 대일무역적자 확대를 걱정하는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상호 개방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기본원칙에 동의함.

○셋째, 양국간 교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의 개선, 전자무역거래 및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비관세 조치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비관세조치의 구체적 사례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에 중점적으로 협의함.

○넷째, 도로, 해운, 항공 등 운송 분야를 비롯하여 금융, 통신, 중소기업과 관련된 양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